세계 커피산업의 지속가능성 *

윤 선 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머리말

커피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음용이 시작된 이후 불과 몇 세기만에 전 세계의 문화로 받아들여졌는데 소위 커피 벨트(bean belt)로 불리는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등 약 70개국 이상에서 2,500만 명이 생산에 참여하며, 커피 가치사슬에 포함된 인구는 1억 2,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세계적인 주요 식품이 된 커피는 개발도상국에서 두 번째로 수출액(2015년 약 190억 달러)이 많은 품목이기도 하다. 커피 생산량은 1960년대 이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소비량은 매년 5%씩 증가하여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매일 약 22억 5,000만 잔의 커피가 소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차를 마시는 문화였으나, 1896년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커피를 접한 것을 계기로 국내 커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일반인들에게는 다방문화와 함께 커피가 전해지고 급속한 경제발전 시기에 믹스커피는 휴식과 피로회복제 역할을 하며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원두커피를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이 등장하며 우리 사회의 여유와 쉼의 의미로 커피가 자리를 잡았다.

---

* (sunny@krei.re.kr). 본 내용은 국제커피기구(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의 「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을 바탕으로 작성됨.

커피에 대한 소비는 앞으로도 지속되겠지만, 생산과 공급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위협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가 세계의 커피재배 적합 지역을 축소시키고 품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품질이 좋지 않은 커피를 지금보다 더 비싼 값에 소비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커피산업을 위협하는 요인과 지속가능한 커피산업을 위한 노력, 그리고 남아메리카 주요국 커피 재배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분석 내용을 정리하여 세계 커피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2. 커피산업의 위협 요인

2.1. 기후변화

커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위협 요인이 커지고 있다. 지구 기온 상승과 강우 패턴 변화 등은 이미 커피의 생산량, 품질, 질병 등에 영향을 주어 일부 커피 재배 국가가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기후 변화로 인해 2050년 세계 커피 생산 지역은 현재의 절반으로 감소하고 2080년에는 야생커피가 멸종될 수도 있다.

주요 커피 생산 국가별 기후 영향을 살펴보면, 멕시코와 중미는 1960년대 이후 기온은 1˚C 상승, 강우량은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콜롬비아는 커피 녹병(coffee leaf rust) 발생이 늘고 2050년까지 기온이 2.5˚C 상승하여 커피 재배지역의 60%가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은 2014년에 가뭄으로 작물의 1/3이 피해를 보았으며, 앞으로도 상당한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는 기온과 습도가 함께 오르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 단위당 수확량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에티오피아는 기온이 이전보다 1.3˚C 상승하였으며 앞으로도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의 커피 주산지인 베트남은 이전보다 기온이 상승하고 가뭄도 반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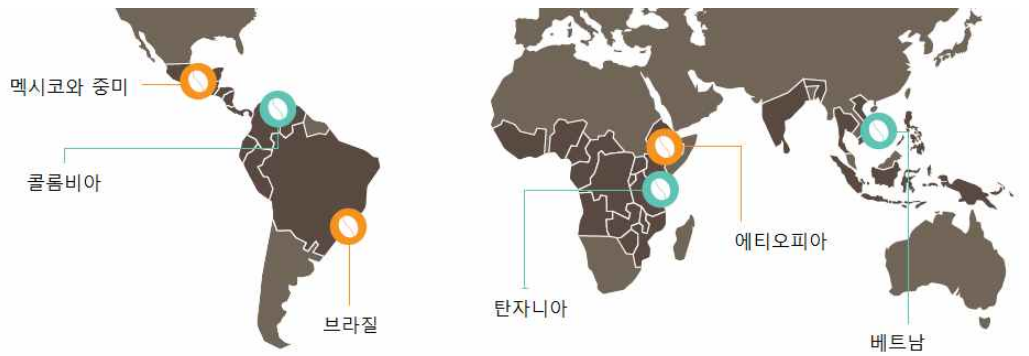
커피 종류 중 아라비카는 주로 고지대, 18~21˚C 기온에서 잘 자라며 23˚C 이상에서는 지나치게 빨리 성숙해 품질이 저하된다. 기온 상승과 강우량 변화로 중미지역에는 커피 녹병이 빠르게 확산되어 생산량의 절반이 감소하였고, 2012/13년 피해액만 약 5억 달러에 달했다.

향후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커피의 양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연

구결과에 따르면, 기온 상승이 2020년까지 이어질 경우, 멕시코에서 커피 재배가 어려워질 것이며 탄자니아의 아라비카 수확량은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과거보다 40% 이상 높으며, 탄소 배출량 감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100년에는 이전의 2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 변화에 따른 커피 재배 적합지역이 감소하면서 향후 다른 지역으로 재배지가 이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시아 등에서 열대우림을 커피 재배지로 만들 경우,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여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커피 생산량 감소는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가격을 상승시키게 된다.

그림 1. 국제커피기구(ICO) 국제 커피가격 지표



자료: The Climate Institute. 「The climate change risks to coffee」.

3. 지속가능한 커피산업을 위한 노력과 기후변화

3.1. 국제적 노력

지난 2007년 국제커피협약(International Coffee agreement)의 목표 중 하나는 회원국들이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커피산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유엔 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채택된 의제 21과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원칙과 목표를 언급하는 제36조에 의해 강화되었다. 국제커피기구(ICO)는 생산측면의 경제적 조건 악화에 따른 지속가능성 위협을 인식하고 품질, 유통 및 다각화 등의 영역에서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3.1.1. 생산측면

커피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생산측면의 노력이 필요한데, SAI Platform Coffee Working Group에서 권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지역에서의 커피 재배를 계획하는 경우, 환경오염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야한다. 커피나무는 인증 받은 종자를 이용하고 유전자 변형된 경우에는 엄격히 구분하여 재배 및 판매되어야한다. 수확량 증대와 건강한 토양 유지를 위해 작물을 순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토양조건 향상을 위해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양분과 수분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침식을 줄여 토양 비옥도를 높여야 한다.

기계적, 생물학적 통제 수단에 중점을 둔 Integrated Pest Management(IPM)를 통해 작물 보호를 할 수 있다. 해충과 천적을 통제하고 농약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독성이 적은 농약을 사용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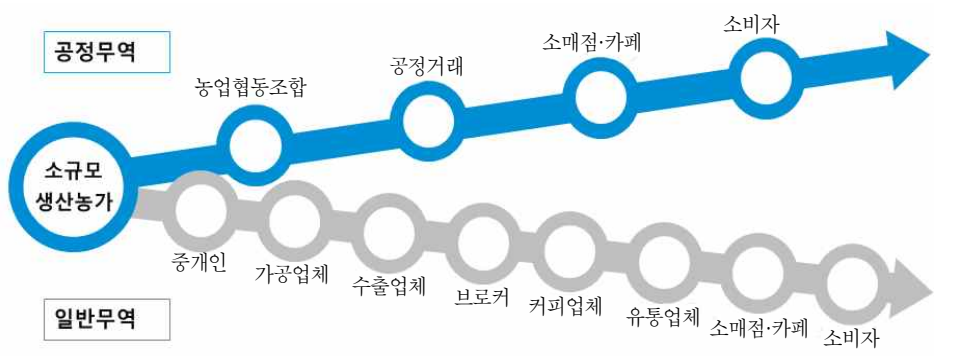
적절히 익은 상태에서 커피 열매를 수확하고 덜 익은 열매와 섞이지 않도록 하며 수확한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공정을 처리해야한다. 커피의 건조는 콘크리트, 테이블, 매트 등 위에 놓아 햇볕에 말리거나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비, 이슬 또는 다른 습도를 피해 말려야한다. 커피는 화학제품 또는 인체 건강이나 환경오염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물질과 함께 두지 않고, 가공된 커피는 깨끗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보관해야 한다.

3.1.2. 공정무역

기존의 커피는 생산부터 유통과정에까지 사회적 약자인 개발도상국의 어린이와 여성의 노동력을 저렴한 값에 착취하고 환경오염을 외면하며 커피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경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한 무역에서 발생하는 문제 인식으로 시작된 공정무역(fair trade)은 사회적 약자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을 추구한다. 즉, 상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과정에 참여하는 이해 관계자들이 그 이익을 보다 공평하게 배분하는 합리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대안적 무역 형태이자 사회운동이다.

커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유통과정은 일반적인 경우, 생산 후 8개의 단계를 거쳐 소비자 손에 들어온다. 반면 공정무역은 소규모 농가가 생산한 원두를 자체적인 협동조합에서 모아 공정거래 과정을 거친 후 바로 소매점이나 카페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중간 유통과정이 매우 짧아지는 특징이 있다.

그림 2. 일반방식과 공정무역방식 커피 유통과정 비교



자료: The View From32. 「Fair trade, coffee, and birds」.

3.2. 환경 · 사회적 측면

환경 측면에서 커피나무는 상록관목(evergreen shrub)이므로 탄소 격리(carbon sequestration)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토양 안정화(stabilizing soils)와 커피 재배지역의 기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다. 일부 재배지역의 습식공정에 따른 수질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제커피기구(ICO)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배, 가공, 저장, 운송, 마케팅 등 커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커피산업은 농촌 일자리와 안정적인 지역공동체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3.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세계 커피 생산량과 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지만, 향후 생산지역과 생산 방식에도 폭넓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커피기구(ICO)는 생산자가 이에 적응하고 변화를 완화할 전략을 수립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재배방식과 수확 후 가공공정의 개선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생산 모델의 도입 또는 보존과 가뭄 및 질병 저항성 품종 개발, 기후 모니터링 강화 등이 있다.

4. 커피 재배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4.1. 국제 커피 가격 동향

최근 커피 생산자 가격 약세와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재배면적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향후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생산자가 공정한 가격을 수취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 커피 가격은 2000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11년 4월 파운드 당 231.24센트로 최고가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3년간 하락한 후 2014년 반등하였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약세를 보이다 2017년 1월 최근 17개월 중 가장 높은 132.98센트를 기록하였다.

2012년 이후 원두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커피 위기' 시기를 맞이했다. 2011년 가격 상승 원인은 세계적인 커피 수출국 콜롬비아의 생산량 감소였다. 이후 커피 가격이 반등했던 2014년은 세계 커피 제1의 수출국 브라질의 가뭄 때문이었다. 과거 커피 가격은 상승 추세를 이어왔으나, 최근 공급 불안정성으로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공급이 안정되면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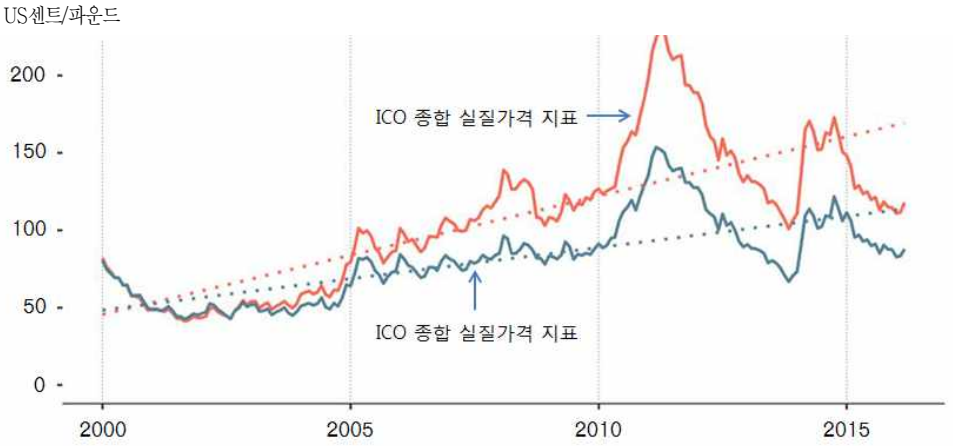
최근 가격이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비와 비교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명목가격은 최근 10년간 평균 파운드 당 137.24센트이나 실질가격과 비교하면 2000년 1월, 80.52센트에서 2016년 1월, 82.75센트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커피 원두 가격 하락에 따라 생산자의 수익성은 악화되지만 실제 소비자는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림 3. 국제커피기구(ICO) 국제 커피가격 지표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그림 4. 국제커피기구(ICO) 국제 커피 명목가격과 실질가격 비교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4.2. 주요 커피 생산국가의 수익성

커피 생산에 따른 수익은 단위당 수확량과 단위당 판매가격의 함수이다. 수확량은 기후 등 자연조건뿐만 아니라 해충과 질병 등에 영향을 받으며 비료와 살충제 등 투입재를 활용해 증량을 도모한다. 커피 생산에 소요되는 가변비용은 임금과 장비, 비료, 살충제, 연료 등이며 고정비용은 농지 임차료, 보험료, 묘목 구입비, 감가삼각비 등이 포함된다. 커피나무의 수명은 국가에 따라 8년에서 20년까지 다양하고, 커피 생산성은 해충 및 질병에 대한 내성의 정도와 생산자의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커피 생산과 판매에 따른 수익은 판매액에서 생산원가를 차감해서 얻어진다. 단기적으로는 판매액에서 가변비용을 차감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정비용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차감하게 된다. 커피 생산의 수익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생산원가가 보장되는 수준을 찾아야한다.

국제커피기구(ICO)는 주요 커피 생산국가인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의 2006/07년과 2015/16년 생산비와 생산자 판매가격 자료로 수익성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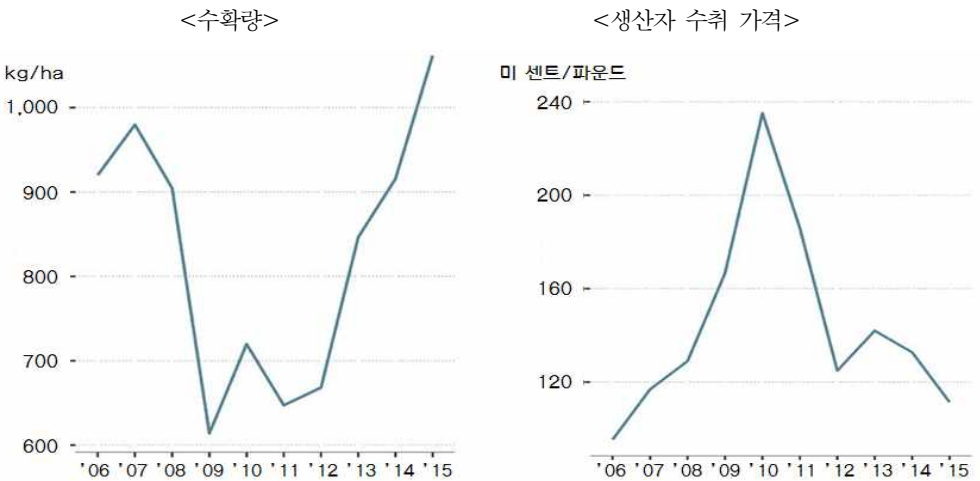
4.2.1.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세계 3위 커피 생산 국가이다. 2006/07년과 2015/16년 사이 연 평균 커피 생산량은 1,600만 자루이며, 이 중 2015/16년 아라비카 커피 생산량은 1,350만 자루

이다. 2011/12년에는 커피 녹병 발생으로 단위당 생산량이 감소했다.

생산비용은 ha당 304만~630만 콜롬비아페소(COP)로 농장별로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로 나타났다. 생산비는 2006/07년부터 3년간 증가하였으나, 이후 녹병 발생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5. 콜롬비아 커피 단위당 수확량 및 생산자 수취 가격 추이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콜롬비아 단위당 생산자 수취가격의 하락 요인은 총 생산비용의 71%를 차지하는 노동비용의 감소 때문이다. 커피 녹병 발생 이후 수확량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 생산비 증가폭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평균 이윤은 ha당 70만 콜롬비아페소로 거의 매해 낮은 수준의 이윤이 발생했으며, 2012년은 낮은 수익으로 인해 ha당 90만 페소의 손실을 보았다. 커피 농장의 장기적인 경제적 생존 가능성은 총 소요비용이 충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커피나무의 수명을 8년으로 계산할 경우 이윤 발생은 불확실해진다.

그림 6. 콜롬비아 커피 생산비, 수익, 이윤 추이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4.2.2. 코스타리카

현재 세계 13번째 커피 생산국가인 코스타리카의 생산량은 2006/07년 170만 자루에서 2015/16년 149만 자루로 13% 감소하였다. 코스타리카의 커피 생산비용 구조는 콜롬비아와 유사하며, 2006/07년 생산비는 ha당 120만 콜롬비아 센트(CRC)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1/12년에는 2006/07년 대비 58% 높은 190만 콜롬비아 센트(CRC)로 조사

그림 7. 코스타리카 커피 단위당 수확량 및 생산자 수취 가격 추이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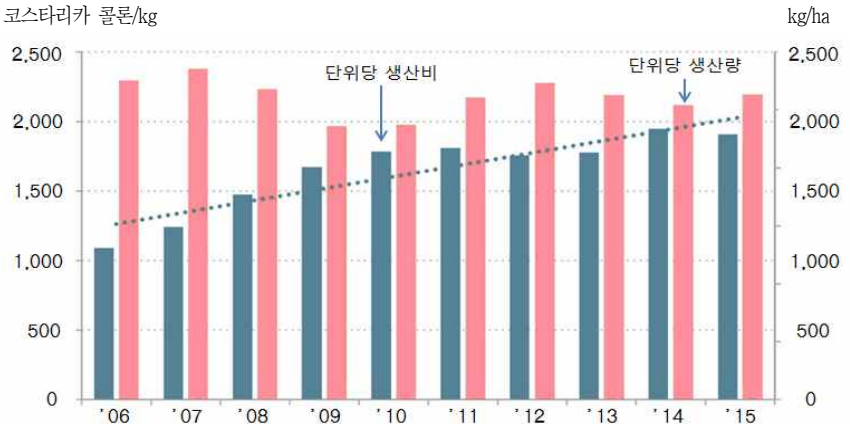
되었다. 커피 녹병 발생 이후 노동 수요 감소에 따라 생산비 증가는 둔화되었다. 2012/13년 이후 생산비는 증가 추세로 190만~200만 콜롬비아 센트(CRC) 수준을 보이고 있다.

코스타리카 단위당 생산자 수취가격은 2006년 파운드 당 95센트에서 2010년 182센트로 약 2배 상승하고, 2011년에는 173센트로 다소 하락하였다. 단위(ha)당 수확량은 비교적 안정적인 1톤 내외로 생산자 수취가격이 상승했는데, 2011년 이후로는 커피 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보게 되었다.

그림 8. 코스타리카 커피 생산비, 수익, 이윤 추이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그림 9. 코스타리카 단위당 생산비, 생산량 추이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코스타리카 커피의 단위당 생산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단위당 생산량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11년 이전까지는 커피 가격이 생산비용을 상회하여 생산자의 이윤이 충분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생산비와 이윤의 균형이 무너지며 생산자의 손실을 반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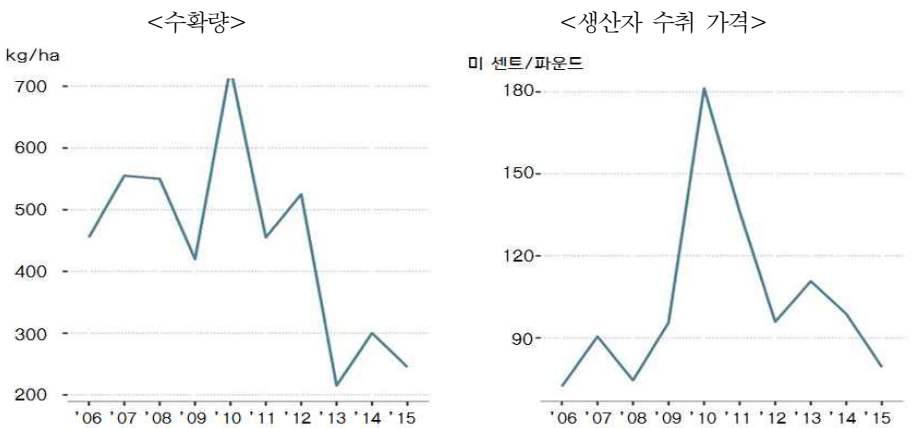
4.2.3. 엘살바도르

최근 10년 동안 엘살바도르는 커피 생산국으로서의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2015/16년 커피 생산량은 57만 자루로 2006/07년 120만 자루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커피 녹병이 발생한 2011/12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생산비용은 2005/06년 ha당 1,000달러에서 2011/12년 1,400달러로 증가하였다. 커피 녹병 발생 이후에는 수확량 감소로 인건비가 줄어 ha당 1,300달러로 다소 감소하였다.

생산자 수취 가격은 2010/11년에 파운드 당 181센트에서 2014/15년 79센트로 하락하였다. 2012/13~2014/15년 커피 가격 하락과 수확량 감소에 따라 생산자 수취가격은 최근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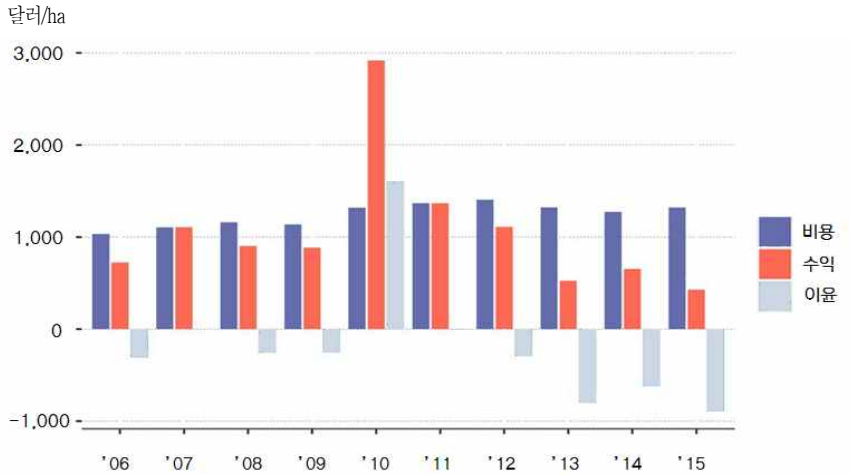
엘살바도르 커피 생산자는 커피 녹병 피해가 심했던 지난 4년을 포함하여 최근 10년 중 7년간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황이 좋아 ha당 700kg을 수확하고 수취가격도 ha당 180달러로 이윤이 매우 높았던 2010년을 제외한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생산자는 ha당 181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손실이 지속됨에 따라 커피 생산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많은 농장들이 코코아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0. 엘살바도르 커피 단위당 수확량 및 생산자 수취 가격 추이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그림 11. 엘살바도르 커피 생산비, 수익, 이윤 추이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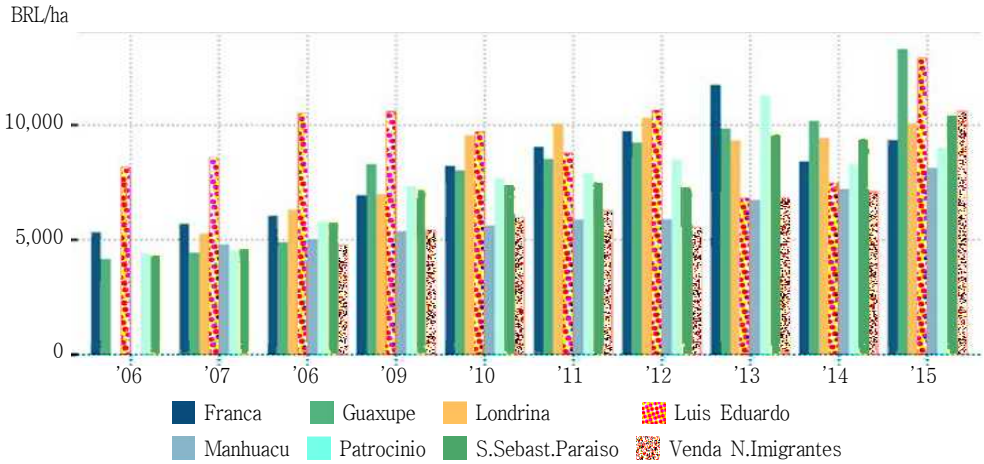
4.2.4. 브라질

세계 제 1의 커피 생산국가인 브라질은 아라비카(Arabica)와 로부스타(Robusta)를 재배한다. 브라질의 2015/16년 커피 생산량은 4,320만 자루로 추정되며, 이는 최근 10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하여 커피 녹병에 의한 피해를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생산비와 이윤 등 자료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생산지역별로 조사되었다.

아라비카 생산비용은 2006/07년 ha당 4,164~8,178브라질헤알(BRL)인데 지역별로는 에두아르도(Eduardo)가 가장 높다. 과슈페(Guaxupe)는 생산비가 가장 낮은 지역이었지만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2015/16년 가장 많은 생산비(10,487BRL/ha)가 소요되는 지역이 되었다. 높은 기계화율과 비료, 살충제, 연료 등의 투입재 증가는 총 생산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계화율이 낮고 수작업으로 커피 원두를 수확하는 지역은 임금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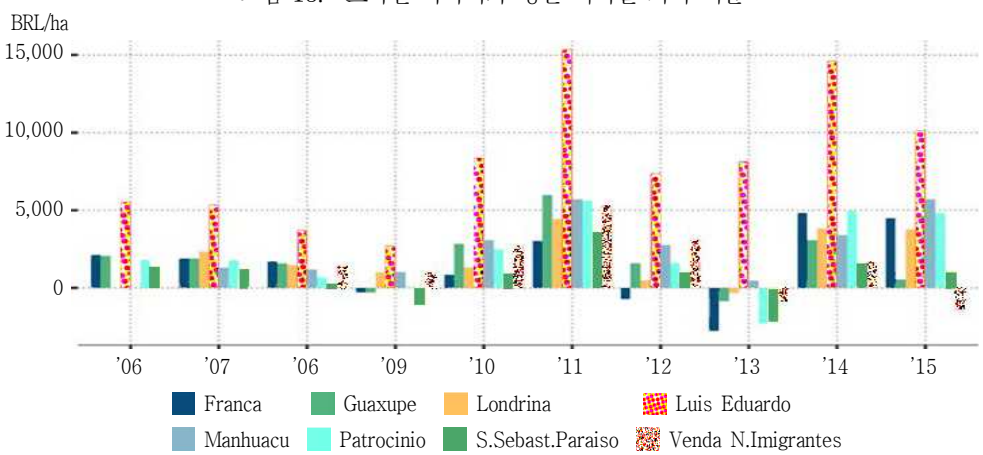
수익은 지역별 생산량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따라서 실제 농장 단위의 생산자 수취가격은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의 커피 생산 수익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지속적으로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두아르도의 2006/07년 이윤은 ha당 2,500BRL에서 2015/16년에는 1만 5,000BRL로 크게 증가하였다. 대부분 생산지역에서 이윤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낮은 지역은 1ha당 400~500BRL에서 에두아르도와 같이 기계화율이 높은 지역은 2,000BRL에 이른다.

그림 12. 브라질 아라비카 생산 지역별 생산비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그림 13. 브라질 아라비카 생산 지역별 커피 이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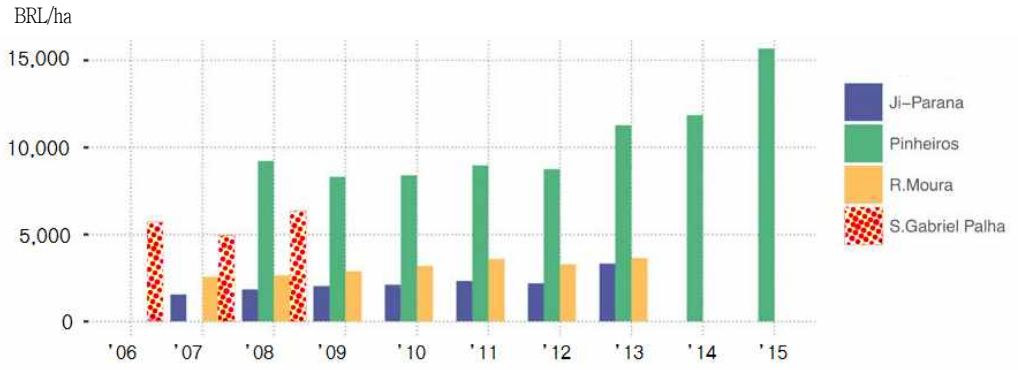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로부스타 생산비용 구조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 2008/09~2010/11년의 이윤은 낮은 수준이지만, 모든 지역에서 이윤을 보이고 있다. S. Gabriel Palha와 Pinheiros 지역의 이윤이 높은 편이지만 로부스타 생산비와 이윤에 대한 자료는 지역별로 산정된 정확한 가격이 없으므로 평균적인 자료를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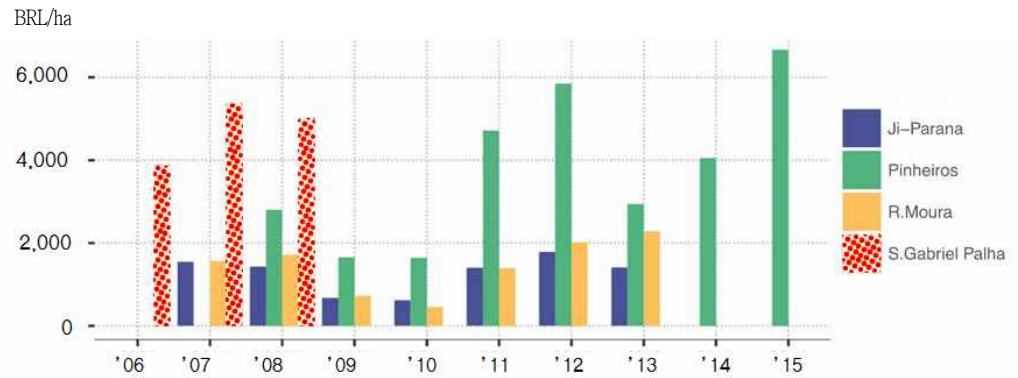
브라질 커피(아라비카 및 로부스타) 생산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은 에두아르도와 같이 고도의 기계화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이다.

그림 14. 브라질 로부스타 생산 지역별 생산비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그림 15. 브라질 로부스타 생산 지역별 커피 이윤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4.2.5. 주요 국가의 생산비용 추이

2006/07~2015/16년 주요 조사 국가의 ha당 연평균 생산비 증가율은 엘살바도르가 2.76%로 낮고, 브라질은 8.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ICO의 커피 가격 지표는 1.45%로 다소 상승하는데 그쳤다. 2006~2010년 커피 가격 상승률(18.5%)은 생산비 증가율을 뛰어넘었지만, 이후 2011~2015년 기간에는 커피 가격이 크게 낮아진(-8.58%) 반면, 생산비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표 1. 남아메리카 국가별 커피 생산비 연평균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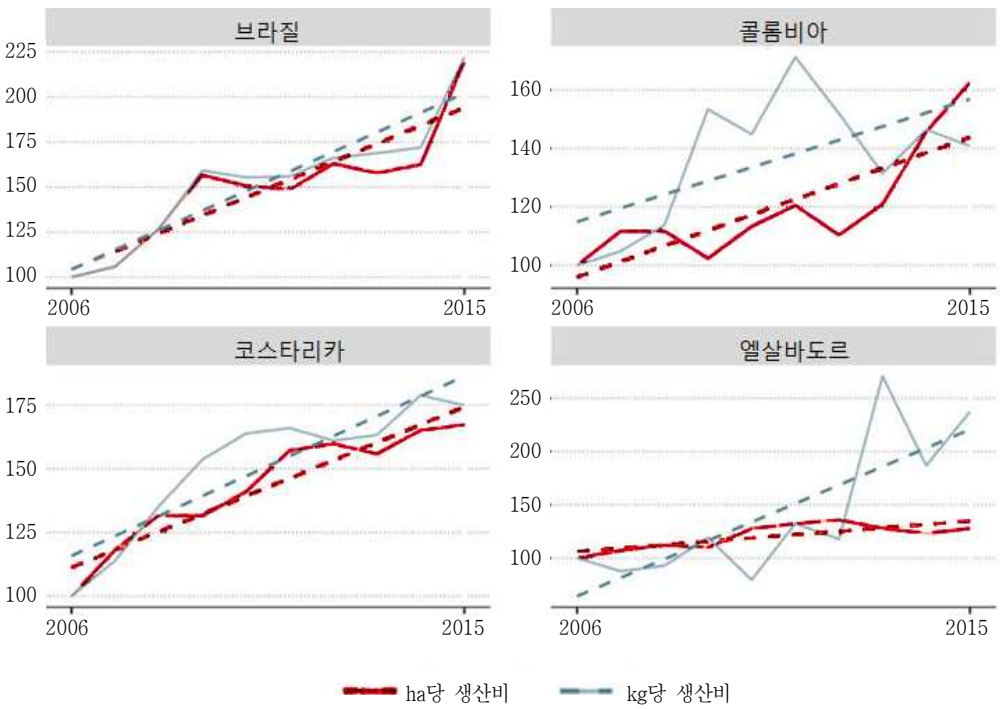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6-2010	2011-2015	2006-2015
브라질	11.60	7.14	8.49
콜롬비아	3.18	7.76	5.54
코스타리카	8.96	1.56	5.88
엘살바도르	6.27	-0.87	2.76
ICO	18.50	-8.58	1.45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그림 13>은 국가별 단위당 커피 생산 비용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별,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단위당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콜롬비아는 연도별 생산비의 증감이 상대적으로 큰데 이것은 연도별 생산량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엘살바도르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1ha당 생산비와 1kg당 생산비가 평행하지 않은데 이는 단위당 수확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16. 브라질 로부스타 생산 지역별 커피 이윤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생산비의 증가 추세 요인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증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투입재 가격 상승, 자본 투자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5. 향후 전망과 시사점

세계 커피산업 관련 기업과 단체들은 기후 변화 등 위협요인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커피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생산측면에서는 재배지역과 커피나무 종자, 토양조건, 투입재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유통과정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한 합리적인 공급체계를 지향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과 가격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재배방식과 수확 후 가공공정의 개선, 가뭄 및 질병 저항성 품종 개발, 기후 모니터링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중요한데 커피 원두 가격은 최근으로 올수록 공급 측면의 불안정성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원두 가격은 생산비와 비교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생산자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반면,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커피 가격은 원두 가격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남아메리카 주요 커피 생산국의 경제적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는 수익 이상의 비용 발생으로 대부분의 연도에 손실을 보고 있으며, 콜롬비아는 낮은 수준의 이익을 보고 있다. 반면, 세계 제1의 커피 생산국가인 브라질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이윤을 지속적으로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브라질의 높은 기계화율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덕분이다.

이와 같이 커피 관련 기업과 농가는 생산측면의 불확실성과 위협 요소에 대비하고 투자하는 등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인류가 기온 상승과 강우 패턴 변화 등 기후변화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가격과 풍미가 바뀔 수 있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생활을 하고, 탄소 중립적이며 공정한 거래를 추구하는 브랜드를 이용하는 현명한 자세를 갖는 것이다.

참고문헌

Global Coffee Platform. 2016.「Coffee Sustainability Catalogue 2016」.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The Climate Institute. 2016.「The climate change risks to coffe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 2016.「Coffee:World Markets and Trade」.

참고사이트

국제커피기구(www.ico.org)
네이버 지식백과(www.terms.naver.com)
미국 농무부(www.usda.gov)
한국공정무역연합(http://fairtradekorea.net)
The View From32.「Fair trade, coffee, and birds」(http://www.awdsgn.com/dailyjournal/oct07/html/dailypg_100707.htm)